



외국대학 연계프로그램과 국제화교육

박 흥 순 | 선문대학교 국제·유엔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학교육의 대내외적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야 하는 국제적 환경변화, 국내적으로는 IMF 재정위기 이후 기업, 정부 등 사회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화 요구, 그리고 대학 내부의 구성원 그리고 학부모로부터의 수요 증대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 등 대학의 발전전략은 거의 모든 대학이 표방하는 대학발전의 전략이자 지표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교육개방화 시대에 한국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뿐만 아니라, 개별대학의 입장에서 타 대학과의 경쟁을 강화해야 하는 요청과도 맞물려 있다. 대학의 국제화교육 강화와 이를 위한 외국대학과의 체계적 연계는 한국이 세계 경제력 12위, 세계 무역량 12위라는 규모에 버금가는 국가적 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나아가

서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한 인프라와 교육내용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의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대학의 국제화교육은 이러한 인재의 요건, 즉 외국어구사능력, 전문지식, 그리고 국제 감각과 소양을 골고루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첩경의 하나이다.

특히 조기유학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학생 중에도 '해외 유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유학생은 약 16만 명, 국내 유입 외국유학생은 약 1만5천 명에 이른다. 따라서 대학의 해외 네트워크와 교류프로그램은 각 대학이 제대로 갖추어야 할 교육제도이며, 행정서비스의 하나가 되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이 십여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자매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유학, 연수를 하고 있고, 교수들의 공동연구, 방문연구, 그리고 국제세미나 등도 개최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소위 “나가는 국제화” 교육의 입장에서 한국대학의 외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화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와 산업계를 비롯하여 대학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과 추진전략을 위한 제언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II. 외국대학과의 교류프로그램 제도 및 운영

각 대학의 정책과 특성화 우선순위에 따라 국제화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운영은 매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제도, 내용 및 서비스는 무척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1. 국제교류의 형태

일반적인 국제교류의 형태로서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국제교류가 있다.

첫째, 양해각서(MOU)에 입각한 교류협정·협력서를 통하여 2개 대학간의 쌍무적 대학간 자매대학교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내용은 학술교류, 학생 파견 및 교수교류, 학점 인정, 공동연구, 공동학위제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이용 등을 포함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대학 전체 차원이 아닌 개별 전공 혹은 학부 또는 단과대학 차원의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지역적 혹은 국제적으로 여러 대학간의 공식연계를 통한 다자적 협력기구이다. 가령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도 AUAP, UMAP, AUN, AUF, ASEF 등의

조직과 기구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IAUP, UNESCO 총장회의 등의 다자기구도 총장 및 대학간 협력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NAFSA 등 대학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있다.

셋째, 비록 공식 MOU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학생 또는 교수가 참여하는 세미나, 국제회의, 행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개별 대학 혹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포럼, 모의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 학생세미나 개최 등의 행사를 실시하는 형태이다.

2. 프로그램의 종류

외국대학과의 프로그램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각종 정규·비정규의 어학연수, 전공분야 연수, 단기문화탐방연수, 전공별 study-tour, 공동자원봉사, 공동인턴실습, 공동국제세미나 등이 있다. 어학이나 전공 분야 연수도 학생 개별적으로 선발·파견되는 경우, 그리고 전공 혹은 학과별로 학생의 전체 혹은 일부가 참여하여 현지 어학연수나 전공분야 연수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주~2주, 혹은 1~2개월의 단기간으로부터, 1학기 혹은 1년 그리고 2년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학은 대부분 학점인정을 기본으로 하거나 소위 ‘3+1’ (3년 국내, 1년 현지교육), 혹은 ‘2+2’ (2년 국내, 2년 현지교육) 제도 등을 통한 학위인정, 공동학위 혹은 복수학위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 외국대학과의 공동 혹은 독자적 해외 캠퍼스 구축, 한국학 보급이나 외국 유학생의 한국유치를 위한 한국어강좌 혹은 한국학 강좌개설 등이

있다.

3.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대학은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바, 단계적으로 보면 첫째, 해외 대학과의 협정 및 이행각서를 통하여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파견 조건, 학생의 자격과 기준, 학점인정, 등록금 등의 재정조건을 제시한다.

둘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심사, 선발하는 과정이다. 성적에 관계없이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공 성적, 외국어 능력, 그리고 인성, 교수추천서 등의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자체기준과 실정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셋째, 파견을 위한 지원으로서, 초청장 등 출국을 위한 제반 서류의 준비, 상대방 대학과의 연락 그리고 기숙사나 민박 등의 알선 혹은 정보제공 등이다. 그 밖에도 필요할 경우, 항공권예약, 일반적 유학안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넷째, 해외, 유학 연수 중 및 연수 후 귀국 학생의 사후관리이다. 현지파견 학생 개인은 물론 해외대학과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귀국 후에는 학점인정, 그리고 평가제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 등이 그 업무이다.

Ⅲ. 국제교류프로그램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위와 같은 국제교류프로그램을 개발,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대학이 당면하는 문제점은 다음의 5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1. 실질적인 교류의 부진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해외대학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자매대학 체결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해외대학과 국내대학들이 중첩적으로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매대학의 숫자나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학생참여나 파견실적은 높지 못한 편이다. 즉, 공식적인 교류협정체결 등 제후는 많으나, 실제적인 action-program에 의해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사실상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총장 상호방문 등의 의례적인 방문에 그치고, 그 이후 지속적인 교류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해외 유학·연수 희망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쿼터, 그리고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강력히 추진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2. 교직원들의 인식 및 협력 부족

학내에서 교직원들의 '국제화교육'에 대한 지지나 국제교류업무의 전문성,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교류업무를 자매대학 체결 등의 의전이나 단순 업무로 보거나, '화려한 해외여행'의 업무수행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개별 교수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와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 교수들은 국제화교육은 대학담당 부서의 업무라는 인식하에 국제화교육이나 국제프로그램의 체계적 발전이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화교육 업무가 교류담당부서, 학생처, 외국어교육원, 입학홍보부서 등에 분산되어 있고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 부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제화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도 하다.

3. 대학의 재정 제약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국제화교육의 성공은 결국 충분한 재정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학교의 일부 혹은 전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대학은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보호 문제는 학교경영책임자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국제화교육에 대한 합의와 지지가 중요하지만, 학생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대부분 대학들의 재정취약성 때문에 보다 강력한 국제화교육의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 대학교육의 국제화가 장학금이나 홍보비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에도, '캠퍼스 정치역학' 즉 예산 수립과 집행을 위한 부서간의 경쟁과 갈등, 협의와 조정, 그리고 교류부서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예산확보가 크게 달라진다.

4. 전문인력 및 전문성의 미비

국제교류업무의 추진업무의 전문성, 특수성

에 비추어 이를 뒷받침할 전문 행정인력의 확보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회화, 작문구사능력이나 국제업무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행정직원 중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 풀(pool)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사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급여나 근무여건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결국 미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대학의 프로그램내용과 서비스의 전문성이 열악한 경우, 학생들은 시설중개소나 알선업체를 통하여 해외·유학 연수 기회를 갖게 되는 바, 자연적으로 비싼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렇게 소개된 현지 연수기관이나 교육내용이 부실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5. 교류대상대학, 국가의 학제차이 및 통제

해외대학과 한국대학의 학제나 학사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교류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유럽 국가나 동남아 국가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학기 기간은 물론, 수업 등 학점인정 방법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에 비해 국제교류에 정부나 주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등의 규제나 통제가 심한 경우도 있다. 가령, 말레이시아의 국립대학은 해외교류시 정부기관의 비교적 엄격한 승인을 필요로 하며, 중국의 경우에도 '2+2' 공동 학위제의 경우 소속 주(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비싼

비자비를 받는 등 정부차원의 통제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Ⅳ.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전략적 제안

대학의 국제화교육 강화는 한국 전체의 국력신장, 경쟁력 제고,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노력과 지원, 기업 및 사회단체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자체의 개별적 노력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1. 정부차원의 지원

국제화교육 강화는 대학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첩경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화교육을 대학자체의 노력에만 의존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OECD 국가로서 그리고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비전과 전반적 위상에 상응하는 대학의 국제화나 국제화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중·장기 청사진(master plan)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적극적으로 국제화교육을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한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영어권 국가들이 국제화교육을 통한 대학교육의 강화와 교육산업의 발전에 대한 야심에 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본 대학들의 국제화교육 강화, 그

리고 중국 대학들의 국제화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여성부 등 정부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 등의 민간부문의 논의하에 국가발전과 연계된 국제화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비전과 지원하에 한국 대학의 전반적 국제화교육이 내실화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결국 나가는 국제화와 함께 외국유학생유치 등 쌍방향 국제화가 수월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교육이 가속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 완화, 주요 교류국가에 대한 교류 관련 정책개선 제안, 해외대학 관련 정보동향 제공, 전국 대학의 국제교류부서간 협력체제와 활동의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류 관련 부서의 독립 및 업무강화, 그리고 대학의 국제화교육 부문의 정기 혹은 수시 평가 등으로 국제화교육 강화와 내실화를 유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개별프로그램으로서 정규 국비장학제도 외에, 우수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지원, 또는 언어연수 이외에 해외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및 NGO 인턴십,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학, 정부, 기업, NGO 등이 함께 각 대학 대표학생들로 구성된 소위 'Korean Dream Team'이 매년 1~2천 명 규모로 단기간에 걸쳐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에서 '신사유람단' 역할을 한다면 국제화교육의 전기를 마련하고, 세계 각지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국제화경험

“

국제화교육 강화는 대학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첩경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OECD 국가로서 그리고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비전과 전반적 위상에 상응하는 대학의 국제화나 국제화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중·장기 청사진(master plan)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현지에서 청년 ‘한류’의 붐을 일으켜서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IMF 위기 이후 그동안 청년실업 대책으로 수만 명에게 지원한 월 50만원 정도의 보조금 등의 예산도 대학과 협력하여 국제화경험을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

지방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의 국가발전전략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NGO와 협력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지방정부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 지역 대학과도 연계하여 학생교환, 주민 상호방문, 문화탐방, 공동연구, 투자유치 및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협조체제는 대학과 지역주민이 연계됨으로써 보다 밀접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 자체의 필요와 투자에 의해 치열하게 국제화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국제화교육의 직접, 간접의 수혜자인 셈이다. 기업이 막대한 재교육비용을 사 용해야 하는 현실이나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의 국제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 혹은 간접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기업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도전탐사, 해외훈련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바, 이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기업은 교육을 위한 ‘사전 투자’라는 관점에서 대학으로 하여금 혹은 대학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지대학, 기업체 등과 연계된 강좌, 언어연수, 혹은 실무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3. 대학의 국제화 비전과 정책

해외대학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화의 추진에는 최고 행정·경영책임자의 비전과 정책의 지, 건학이념구현을 위한 재단의 지원, 그리고 구성원들의 합의 및 추진전략 등이 선결조건이다. 국제화교육이 시대적 요청이며, 이를 위한 대학의 해외대학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대학발전의 비전과 정책적 의지

는 대학 자체의 판단과 합의를 거쳐 도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예산의 지원, 그리고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와 참여를 위한 노력은 상당 부분 총장의 리더십 여부에 달려 있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발전 비전 계획서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청사진을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만드는 데는 역시 총장의 업무추진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비전의 정립과 정책을 위하여 대학 내에 총장이 주관하는 국제화교육 특별위원회나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화 비전과 발전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학 자체의 전략과 업무추진

1) 한국대학 전체차원의 연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개별 대학의 노력 이외에 대학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프로그램개발, 운영도 고려될 수 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국제화교육에 치중을 함으로써 경쟁적으로 해외대학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에 비하여, 프로그램이 영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대학이 가진 특성과 노하우를 살려서 국내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가령 외국어 언어권별, 지역별, 전공별로 지역대학 혹은 연계대학과 공동으로 학생을 참여시키는 경우, 소위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참여 학생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관대학 혹은 거점대학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하고, 프로그램 수수료 후 공동수수료

증(certificate)을 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2) 대학의 추진 전략적 측면

첫째, 학교의 규모나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가급적 여러 국가의 여러 대학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각 국가별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지역별 혹은 프로그램별로 하나 혹은 몇 개의 선별된 대학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교류의 지속성과 실적 때문에 상대방 대학과의 가시적 성과를 통한 신뢰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학비협상, 교환학생 수 등에서 대학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류상대 대학의 다변화(지역 및 국가)를 꾀하는 것이 요청된다. 가령 영어연수의 경우,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구 선진국가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영어집중교육이나 일반적 대학 수준이 높은 반면, 학비, 생활비 등이 저렴한 편이므로 이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특히 단기어학이나 문화탐방연수의 경우 동남아국가들은 저학년이나 첫번째 해외훈련 경험자에게 적합한 틈새시장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셋째, 각 대학의 실정과 국제화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차별화,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정지원 부문에서 학생 자비부담과 학교지원을 어느 정도로 부담 운영하느냐가 학생들의 참여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실행정책의 내용이다.

또한 국제화교육의 중점 목표가 일반적인 국제화경험인가, 집중 혹은 기초적인 어학연수인가 아니면 전공 관련 연수인가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비중을 정하고, 차별화해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일반적인 국제화경험이라면 1~2주간의 아시아지역 단기문화탐방 연수로 족할 것이며, 어학연수의 경우 보통 4주부터 6개월 혹은 1년까지 영어권 아시아대학으로부터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학프로그램까지 추진할 수 있다. 단계적인 훈련을 위하여 1~2학년의 경우, 1주일 정도의 문화탐방연수 등을 통하여 자매대학방문, 공동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1~2개월의 단기 어학연수나 자원봉사참가를 유도하고, 2~3학년의 경우에는 1학기 또는 1년간 어학연수 또는 전공연수 등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실행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어와 전공을 동시에 습득하게 하는 전공과목 수강이나 전공 관련 인턴십 등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연수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예비신입생들에게 재학생에 준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교육을 통한 학생만족도와 국제화능력 제고에 상당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넷째, 상대방 대학과의 보다 유리한 교류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협의·협상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서구권대학들은 물론 중국대학들도 한국대학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교류를 원하기보다는 주로 한국학생을 유치하는 방편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제로 한국대학생들이 상당수 파견되는데 비하여, 여전히 선진국 대학생들은 한국학

이나 아시아 지역학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것은 한국 자체의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등과 연관된 문제이지, 단지 한국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대학은 학생파견 수나 비율, 학비관계 등에서 협상노력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 국가와 상대방 대학에 대한 자료수집, 분석 등의 노력, 그리고 협의 관행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류 협력에 관해서 상대방 대학과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행계획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MOU에서 제시한 기본정신과 원칙을 기본으로 학생교육일정, 교육내용, 강의시간 및 학점, 기숙사, 기타 학생활동, 의료보험 등에 관한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서구권대학들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이 외국학생의 수용을 위한 표준약관이나 입학허가서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현 지대학의 기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아닌 소위 맞춤형 교육의 경우, 특히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학 자체의 여건개선 측면

첫째, 무엇보다도 교류대학과의 호혜적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대학 자체의 체제와 준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해외대학들 중 많은 학교들이 학생의 파견 등 상호 균형적인 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대학들이 외국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함을 지적하곤 한다. 국제화교육 체제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하고, 해외대학과의 교류활성화로 학생들의 해외파견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실질적인 교환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학생들이 오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어 Homepage의 구축, 영어강좌 등 원어강좌제도의 개발, 한국어훈련 프로그램, 한국 관련 Korean Studies 프로그램의 운영, 외국인기숙사 등 학생편의 시설, 한국어 도우미제도, 외국학생 전담 지도교수 및 부서의 강화, 국제업무 전담인력의 보완 등 내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직원의 국제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제화프로그램에 교비 지원에 의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직원들의 참여는 대학프로그램에 대한 바른 이해, 국제적인 감각 배양, 실무지식 습득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 해외여행시 학생지도 등의 역할분담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각 대학의 원어 강좌 등의 내실화를 기하고, 담당교수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 교류업무의 전문성제고와 우수인력확보를 위해서 창의적인 인사정책과 급여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제도적으로는 전문인력의 직위 보장, 그리고 직무급 혹은 연봉제를 도입하여 교류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에 따른 차별화된 우대제도보장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 해외 현지 대학 원과정이나 언어연수, 실무연수 기회를 주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배양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또한, 교류협력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 국내외 이벤트 행사 또는 해외 출장 등의 기회를 통하여 업무 관련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 내부에서 재정지원의 확보와 확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와 검증이 제시됨으로써 국제교류의 교육적 정당성과 명분을 갖출 수 있고, 그것은 교내구성원들의 지지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보다 경제적인 방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자비유학생이나 상호교환학생 비율을 확대하여 '쌍방향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교환학생의 경우, 반드시 1:1의 교환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동시교환이 아닌 점진적 혹은 순차적 교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한 후, 해외연수를 감으로써 대학의 등록률이 저하되고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본교와 현지대학에 동시에 등록을 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다른 방법의 하나는 해외 유학·연수 적금제도 등을 개발, 실시하는 것이다. 해외·유학연수를 위한 자금으로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각종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초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성적이나 리더십은 우수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수학생들의 해외연수는 국제화교육 성과의 극대화, 파급효과 등에서 일반학생들의 참여에 비해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를 통해서 그 효율성, 즉 인지도 상승, 우수학생 유치, 학생 만족도 제고, 취업률 상승, 우수학생 배출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파견학생들이 현지 도착 이후 정기적으로 교류부서와의 연락체제를 갖추고 진행상황,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호통신을 하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귀국 후에는 현지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학생의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를 평가하고,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앞에서 살펴본 해외대학 연계프로그램과 국제화교육에 대한 기술은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국대학들이 당면한 현안의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이다. 각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제화교육을 지향하며, 정책의 우선순위, 투자규모, 인적·행정적 서비스 등을 실시하느냐 하는 것은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추어 선택,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제화교육은 시대적 추세이며, 사회적 요청이기도 하다. 수요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대부분 각 대학의 국제화교육의 강화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다. 보다 실제적인 과제로서 대학 입학 후에도 학원수강이나 자비연수 등에 지출하는 대학생들의 엄청난 사교육비를 대학이 경감시킬 수 있고, 그러한 수요를 대학이 흡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

학은 체계적인 국제화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이 절대 필요하며, 원하는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해외유학·연수를 할 수 있는 해외대학연계, 교육프로그램개발, 재정지원, 행정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화프로그램은 대학 자체의 특성화를 가속화시키고, 대학간의 건전한 경쟁, 그리고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한국대학의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과제는 비단 대학 자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의 국제화, 국가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 국가적, 산업적,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해외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는 개별 학생의 국제경쟁력 제발과 한국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유능한 노동인력을 공급함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학교육**

박홍순

미국 남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선문대학교 교류협력처장, UN본부 인턴, ACUNS Fellow, 미국무성 Fellow, UN총회한국대표단 자문교수, 외교통상부 JPO선발심사위원, 교육부 국제대학원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선문대학교 국제·유엔학과 교수 및 평화사상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AUF(아시아대학연합) 사무총장, UN한국협회 자문교수, ASEF한국대표단, 한국국제기구학회장, 한국시민정치학회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국제기구학』, 『UN개혁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대학간 교류협력 증대 방안』 외 다수가 있다.